

	<b>보도자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8일(월) 총 9매			
담당 부서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정책팀장 유숙임 ☎440-3851 • 담당자 김장기 ☎440-38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임손실 등 정부정책으로 도시철도 구조적 경영난,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 요청**

-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역대 최대 위기...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 공동건의
- 낮은 요금, 인구구조 변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시철도는 전례없는 재정위기 직면
- 노후시설 재투자, 도시철도 안전 및 승객편의 확보에 필요한 투자여력 고갈
-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도시철도망 확충에 대비 전국 지자체 적극적 대응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붙임1 참고)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서울시와 대전시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지난 3월 24일 인수위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의정부,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 기초(6) : 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되어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2021년 당기 순손실은 1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였다.

인천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2015년 요금인상 이후 동결하고 있어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이 평균 30% 수준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

\* 전국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통계청) : ('21년) 16.6% → ('25년) 20.6% → ('50년) 40.1%→ ('70년) 46.4%

게다가 인천과 서울의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20년 이상 지나면서 전동차 등 노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여 소요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는 그간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하였고, '21년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시철도망의 지속적 확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무임손실을 국비 지원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무임손실에 대한 논의가 국회 등에서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정부에서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협의회측의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천 5백만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 지원을 위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2천 5백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뜻을 모아, 국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출범할 새 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보편적 복지제도로 도입되어 38년간 시행되면서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광범위한 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가속화,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1년 도시철도는 전국적으로 1조 6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당기 순손실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서울·부산 등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교체·보수,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수송원가 대비 평균운임 비율은 전국 평균 30% 수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구조적인 재정난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원인제공자이자 정책시행의 수혜자입니다. 또한 무임손실 지원을 위한 여유재원 배분 등 문제 해결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한 주체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둘째,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울특별시시장 오 세 훈 (인)



부산광역시시장 박 형 준 (인)



대구광역시시장 권 영 진 (인)



인천광역시시장 박 남 훈 (인)



광주광역시시장 代 문 영 훈 (인)



대전광역시시장 허 태 정 (인)



경기도지사 代 오 병 권 (인)



의정부시장 안 병 용 (인)



부 천 시 장 장 덕 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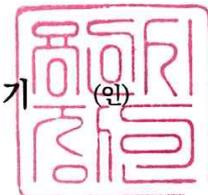
남양주시장 代 박 부 영 (인)  
교통국전용



하 남 시 장 김 상 호 (인)



용 인 시 장 백 군 기 (인)



김 포 시 장 정 하 영 (인)



[ 정부가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지시했다는 논리와 근거 ]

□ 전두환 前 대통령 지시로 서울 도시철도에 노인 무임승차 최초 도입

- '84.5.22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식에 참여한 전두환 前 대통령이 서울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도입을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 당시 지방자치가 도입되기 전으로 서울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였으며, 군부정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음
- \*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① 서울특별시에 시장 1인을 두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결국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대통령(또는 정부)에 의해 도입 된 것임

< 서울 지하철 2호선 개통 당시 신문 및 보도 >

	<p><b>65세이상 無料승차방안 강구</b></p> <p>全大統領 2호線시승을위해서울지하철2호선전구간개통을계기로 65세이상의노인에대해 지하철을 무료로승차할수 있도록하는 방안을인복지향심과결론사상의고양</p>
	<p>강구하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lt;사진&gt; 그런데 지금까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이상의 노인에게는 경로우대승을 발발하여 시내버스는 무료, 지하철은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p>

매일경제('84.5.23)

<p><b>65세 이상 地下鐵  무료</b>  <b>서울市, 5월1일부터</b>  <b>서울市는 23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승차운임을 받지않기로 했다.</b>  <b>이는 全斗煥대통령의 「노인 복지향상과 경로사상을 높이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운임을 면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b></p>	<p><b>65세 이상의 老人</b>  <b>지하철 無料승차</b>  <b>서울市는 23일 全斗煥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승차운임을 전액 면제 조치했다.</b>  <b>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5월1일부터 지하철의 출입구의 열차에서부터 지하철역의 50%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b>  <b>이날부터 지하철의 승차운임을 면제 조치했다.</b>  <b>이제까지는 경로우대증을 가진 노인들만 지하철의 50% 할인 혜택을 받아왔다.</b>  <b>이제부터는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 무임승차 하게 됐다.</b></p>
<p>경향신문('84.5.23)</p>	<p>동아일보('84.5.23)</p>



〈 뉴스 대본 〉

- 서울지하철 2호선 중 시청앞에서 서울대학입구에 이르는 19.2 킬로미터가 준공 개통됨으로써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지하철 2호선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한바퀴 도는 순환선으로써 6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 지하철 2호선의 역사는 모두 43개인데 이화여대앞역은 전체가 아치형 터널로 돼 있고, 천장이 온갖 전등시설로 갖추어져 화려합니다.
- 서울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하 락)

대한뉴스 제 1490호('84.5.23)  
(동영상 출처 : <https://youtu.be/8upmaQDWhEc>)

□ 당기순손실 및 무임손실

(단위: 억 원)

구 분		연평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합계	당기순손실	13,427	10,330	10,677	10,899	18,421	16,808
	무임손실	5,526	5,853	5,997	6,350	4,577	4,851
서울	당기순손실(a)	7,559	5,253	5,389	5,865	11,137	10,151
	무임손실(b)	3,236	3,506	3,540	3,709	2,643	2,784
	무임손실 비율(b/a)	49%	67%	66%	63%	24%	27%
부산	당기순손실(a)	1,852	1,492	1,660	1,525	2,634	1,948
	무임손실(b)	1,217	1,248	1,306	1,396	1,045	1,090
	무임손실 비율(b/a)	70%	84%	79%	92%	40%	56%
대구	당기순손실(a)	1,693	1,593	1,480	1,396	2,062	1,936
	무임손실(b)	521	547	569	614	416	459
	무임손실 비율(b/a)	32%	34%	38%	44%	20%	24%
인천	당기순손실(a)	1,401	1,170	1,216	1,247	1,591	1,783
	무임손실(b)	254	250	271	297	213	240
	무임손실 비율(b/a)	19%	21%	22%	24%	13%	13%
광주	당기순손실(a)	371	354	405	357	375	366
	무임손실(b)	79	87	89	92	63	64
	무임손실 비율(b/a)	22%	25%	22%	26%	17%	18%
대전	당기순손실(a)	399	377	400	366	436	416
	무임손실(b)	102	116	117	122	76	80
	무임손실 비율(b/a)	26%	31%	29%	33%	17%	19%
용인	당기순손실(a)	128	91	127	130	141	150
	무임손실(b)	39	37	40	47	35	38
	무임손실 비율(b/a)	31%	41%	32%	36%	25%	25%
김포	당기순손실(a)	46				41	52
	무임손실(b)	25				23	28
	무임손실 비율(b/a)	55%				56%	54%
의정부	당기순손실(a)	8			13	4	6
	무임손실(b)	66	62	65	73	63	68
	무임손실 비율(b/a)	100%			100%	100%	100%

※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송량 감소로 운수수입 및 무임손실액 감소

※ 의정부경전철은 '17~'18년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운영, 현행 사업자 '19.5.1.부터 운영

※ 부천 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무임손실은 48억, 하남은 '21년 39억(서울교통공사 무임손실에 포함됐으며, 지역별 승차인원 비중으로 추산)